



겨자씨 자라나서

(마태 28,20)

김동원 베드로 신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장



해외선교봉사국 김동원 베드로 신부입니다. 대만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산골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원주민 신자들을 생각합니다. 처음 원주민 언어로 미사를 봉헌했을 때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하시던 할머니들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쭉뚝대며 엄마 뒤에 숨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대만에서 11년의 사제 생활 중 8년을 가난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같습니다.

얼마 전 그중 한 아이를 만나러 성주간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졸업 연주회에 초대를 받아 다녀온 아주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가져보라고 바이올린을 가르친 아이들이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가장 작았던 아홉 살 친구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하기에는 손가락이 조금 짧았던 친구였는데 첼로도 배우고 싶어 하기에, 저도 배우면서 함께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꿈이 커가던 중, 중학교부터는 음악 전문 학교로 전학을 준비시켰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주고, 제가 떠날 날이 다가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필요한 장학금을 본당 수녀님께 맡기고 제가 쓰던 악기도 친구 손에 쥐여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해 전 친구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연주회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연장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짧은 이 여행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버지가 되어 연주회를 즐기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가장 큰 꽃다발이 저에게 왔습니다. 공연 안내서에는 제가 처음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이 건네준 수많은 연습용 바이올린과, 도시에서 산골까지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 지도해 주신 '진짜'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라는 것ですよ. 도움을 열어내는 도구가 곧 선교사이고 사목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연주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산골에서 새로운 배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나 하늘의 새들을 품는 겨자씨를 뿌리는 일, 희망과 꿈이 자라나도록 모든 것을 열어내는 일꾼으로 선교사는 살아 갑니다. 물론 제가 선교 사제로 파견될 때는 해외선교봉사국도, 해외선교후원회도 없었고 교구의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저는 꿈꿉니다. 시노드의 정신처럼 평신도의 힘으로 더 넓게, 더 멀리 꿈과 희망의 겨자씨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 방법

(1, 2 중 택일)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문의

02) 727-2407, 2409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 신청 QR

어른 신부님들을 찾아 뵙고



신정훈 미카엘 신부

독일 뮌헨-프라이징대교구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뮌헨에서 신정훈 미카엘이 인사드립니다.

지난 사순절에 절제된 생활을 잘 못한 대신 밀린 숙제와 같았던 어른 신부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페터 노이너 신부님은 저를 2002년부터 지도하셨고, 2014년과 2015년 두 번이나 한국을 찾아오셔서 예산 수덕사의 선방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가톨릭 신학대학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개신교와의 성사 교류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5년 전 그분은 산소마스크를 쓰고 당신의 80세 기념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전까지 등산을 다니는 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던 터라 저는 크게 놀랐었습니다. 그 뒤 뮌헨을 떠나 동생이 사는 동네의 양로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양로원에 들어섰고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겨우 입에 떠 넣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시선을 돌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방을 보여주며 하루 일과를 설명하신 뒤 100미터 남짓 떨어진 동생 집에서 커피를 대접하셨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20분 정도 걸렸고, 신부님은 결국 차를 타고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2020년 폐렴유증 진단을 받으신 후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쉬운 일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불평의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시며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최근에 쓰신 책을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좋다고 해 하고 싫다고 흥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성하고 곱씹는 실존적 신앙을 그분에게서 엿보았습니다.

얼마 후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의 안톤 베로이터 신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올해 88세이신 그분은 서품을 받자마자 보좌신부로 부임하시어 중간에 7년을 이웃 본당에서 지내신 것을 빼면 주임신부로, 은퇴신부로 61년을 같은 본당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또 그 가운데 30년 남짓 한국의 신학생들을 돌봐주셨습니다. 13년 전 은퇴하실 때 뵙고 다시 찾아보니 함께 지내시던 수녀님과 사목 보조자 자매님은 이미 하늘 나라로 가셨습니다. 묘 앞에서 신부님은 “작별이지!”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하루 종일 당신이 다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본당과 동네를 구석구석 보여 주시고 다시 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마치 동네 어귀의 큰 나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동네의 변화를 지켜보시고 함께 가꾸어온 신부님께서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신앙은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듯 말 듯 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신부의 삶은 가벼워야 해. 크게 심각할 필요가 없어!”

목은 숙제를 한 성취감이 아니라 두 분과의 만남이 제 마음을 흐벅지게 만들었습니다. 선�하신 하느님을 의지하는 이가 신앙인이요, 그 모습을 보여 주는 이가 목자이구나를 배웠고, 그것을 막을 것은 없음을 느꼈습니다.



대만에서 온 편지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만 신주교구

찬미예수님!

저는 현재 대만 신주교구 성체성당 주임 사제로 사목하고 있습니다. 성당 옆에 있는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원목 사목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구 청소년 담당도 맡게 되었습니다. 교구 간 6년 계약 중 어느덧 4년이 지나 이제 약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2년은 어학 기간이었기에 실제 본당 사목을 한 기간은 겨우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만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활동이며, 복음 선포의 대상은 새로운 신자뿐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는 중국어로 된 천주교 서적과 교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때 한국의 천주교 서적과 교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번역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의 어학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어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교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속한 신주교구에는 대만인 사제보다 외국인 사제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신주교구뿐 아니라 대만의 다른 교구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만에는 타이베이에 하나의 신학교만 있으며, 신학생 수는 약 12명 정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교사 사제들이 방인 사제 양성에 힘썼듯이, 지금의 대만 교회 역시 방인 사제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와 수도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우 여러분의 기도까지 함께한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에는 60년 이상 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도 작년이 본당 설립 60주년이었습니다. 성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대만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데, 결국 성당 지붕 누수가 발생하였고, 적지 않은 공사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 신자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어서 자체 모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선교봉사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아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를 통해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교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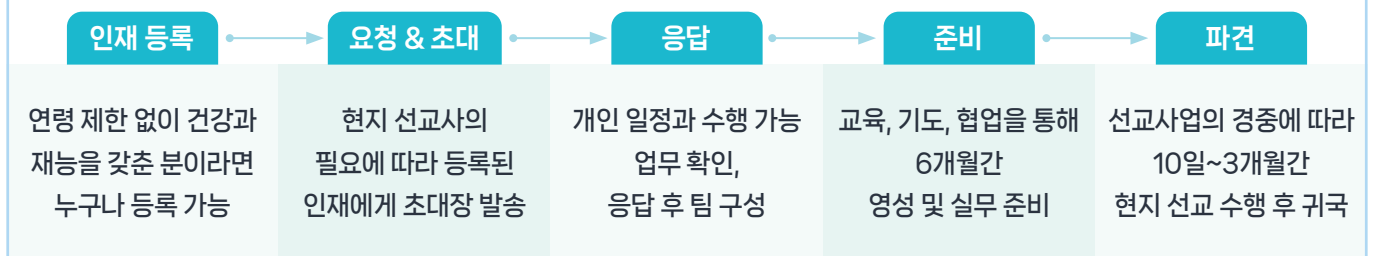
해외 선교사 인재 은행



선교사 인재 뱅크

6월 현재까지 43명의 소중한 인재가 등록해주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선교의 기쁨을 함께 나눌
 더 많은 분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은 '인재 은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2026년 7월 2일(목) 오후 2시	일시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집전	김동원 베드로 국장신부	집전	박형문 바오로 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젊은이 선교 체험

주보 지면을 통해 만나게 된 12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살레시오 수녀회 운영 '노밍요스 학교'로 선교 체험을 떠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몽골 청소년들을 만나 뜻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